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피해보상지원확대촉구건의안

의 안 번 호	200
------------	-----

발의년월일 : 1995. 9. 25.

발 의 자 : 이철교의원외 12인

1. 주 문

한전과 울진원자력발전소가 펼쳐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 울진원자력발전소 연접지역에 위치한 우리 삼척시 소재 원덕읍이 관련 법률에 의거 발전소 주변 지역외의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한데도 단지 동일시도내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 채,

매년 막대한 지원사업이 울진군에만 국한되게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있는 법집행을 촉구하고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보상지원확대 촉구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및 한전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바와같이, 울진원자력발전소 1-4호기 건설당시, 원전건설 소재 지역과 불과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연접지역에 위치한 우리 삼척시 소재 원덕읍지역은, 원전이 가동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는것을 알면서도

국가기간산업건설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구국의 일념으로 원전 건설을 묵과하였으며, 울진원전 1, 2호기건설 착공단계부터 지금까지 원전건설에 필요한 우리시 원덕읍지역 가곡천 골재를 공급하는등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울진원전 1, 2호기가 본격 가동되면서, 고온폐수방출에 따른 수온상승의 영향으로 연안 양식업을 비롯하여, 어획량이 현저히 감소되는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속출하게 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외의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우리시 지역내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누차에 걸친 제몫찾기 탄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전에, 한전은 울진원전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과연 책임있는 정부 및 공기업으로서 국민들의 민심을 생각하는 올바른 태도인지 먼저 반문하고 싶습니다.

1993. 12. 10. 원전주변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법률 개정당시에는, 울진원자력 발전소 1, 2호기가 가동중에 있었으며,

현재 3, 4호기가 준공단계에 있고, 앞으로도 5, 6호기를 더 건설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주민보호를 위한 유사시 비상 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하기 위하여 비상계획구역을 발전소 중심 반경 8 - 10km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원전주변지역 지원거리를 반경 5km이내로 규정한것은, 원전기수와 8 - 10km 지역의 비상계획 구역 지정 관리 정책과 배치되는 행정편의의 획일적인 규정이라고 밖에 귀결지을수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같이, 울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우리시 소재 원덕읍 가곡천골재가 투입되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1995. 3. 27. 한전에서 삼척시장에게 울진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여론사항 협조요구의 건에 대한 회시 내용에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우리 삼척시 소재 원덕읍이 발전소 주변지역외의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전측도 인정을 하였으나, 이문제는 울진원전지역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이라고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이 문제가 울진원전지역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이라곤 치더라도, 현재 울진원전지역위원회의 위원9명 전원이 울진지역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시 원덕읍 주민들의 피해보상 지원 요구사항을, 자기지역내의 현안처럼 전적으로 수용해 줄수가 있겠으며,

그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 관련법률도, 지역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 개정되는지,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운영 및 감독권한도 한전에서 떠나, 전적으로 해당 원자력발전소에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한전측의 무책임한 태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전 스스로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우리시 소재 원덕읍이 발전소 주변지역외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듯이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부와 한전이 책임을 회피만 할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이문제에 개입하여 해결하는것이 올바른 역할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내용에 건의된 바와같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이 반경 5km로 획일적으로 규정된것을, 원전기수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확대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법률에 의거 마땅히 우리삼척시 소재 원덕읍 지역이 발전소 주변지역외의 지역으로 지원이 가능한데도 동일 시도내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기에 지원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피해보상 쟁취라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때까지, 정부 및 한전을 상대로 끝없이 투쟁할것이며,

울진원자력발전소 5, 6기 건설시에는 10만 삼척시민 모두가 총연대하여, 원전건설반대집회, 원전건설지역 방문 연좌시위등 강경하게 대처할것임을 천명드립니다.

2. 제안이유

울진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 지역 원덕읍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발전소 주변지역외의 지역으로 당연히 지원이 가능한데도

단지 동일 시도내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된채 매년 울진군에만 국한되게 막대한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대한 강력한 항의와 원전 주변지역 지원거리를 반경 5KM이내로 원전기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한것을 원전가동기수에 따라 탄력성 있게 확대 조정 촉구하기 위함.